

일반인의 대체의료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정양수* · 문봉경* · 남형우* · 박주성* · 엄세연** · 최병무***†

The Survey on Using Alternative Medicine in General Population with Medical Problems : A Pilot Study

Yang-Su Jeong, M.D.,* Bong-Kyung Moon, M.D.,* Hyeong-Woo Nam, M.D.,*
Joo-Sung Park, M.D.,* Se-Yeoun Eum, M.D.,** Byeong Moo Choe, M.D.***†

— ABSTRACT ————— *Korean J Psychosomatic Medicine 6(1) : 70-78, 1998* —

Alternative medicine is defined as the practices used for the prevention and the treatment of diseases that are not taught widely in medical schools, nor generally available inside hospitals. Alternative medicine or therapy is of growing interest to the general public. We conducted a survey to determine the prevalence and patterns of using alternative medicine such as herbal medicine acupuncture, folk medicine, health food and diet, yoga, qi therapy, shiatsu, chiropractics, homeopathy etc.. Based on 794 completed questionnaires, 484 respondents(61%) reported using at least one form of alternative medicine for their medical problems. The major medical conditions for which they used alternative medicine were back pain(85.6%), arthritis(85.4%), hypertension(85.2%), cerebrovascular disorders(86.4%), and insomnia(84.6%). The types of alternative medicine frequently used were herbal medicine, acupuncture, folk medicine, and health food. The reasons why the vast majority of people sought after alternative medicine was that : less side-effect, it is not harmful, it is more effective, there is a shorter waiting time, and a better explanation for the conditions and a kinder therapist. We found that the frequency of using alternative medicine in the health care system was high. Physicians need to be more aware that many patients may be using alternative medicine. Further survey of the nation-wide prevalence of alternative medicine, and scientific study into the efficacy of this medicine should be followed. In the meantime, we suggest paying attention to possible harmful effects caused by some sorts of alternative medicine.

KEY WORDS : Alternative medicine · Prevalence.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Dong-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usan, Korea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Department of Psychiatry, Dong-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usan, Korea

†Corresponding author

서 론

현대의 과학적인 의학의 수준에서 효능이나 부작용과 독성 등이 검증되어 있는 치료법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현시대의 의료를 정통적 의료(Orthodox medicine)라고 할 수 있으며(최병무 1997), 정통적 의료는 외과적 질환이나 감염성 질병의 치료 등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어 질병의 퇴치와 예방에 기여해 왔다. 이에 반해 대체의료 또는 요법(Alternative medicine or therapy)은 정통적 의료와는 다른 이론과 경험의 근거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치료 형태와 방법을 총칭하며(최병무 1997), 일반적인 서양의 전통적 의료(conventional medicine)와 비교되는 의료를 지칭하여 비전통적 의료(unconventional medicine)라고 하기도 한다(Gordon 1996). 이런 대체의료는 의과대학에서 널리 가르치지 않거나 병원 내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질병의 예방법이나 치료법에 사용되는 것으로(Jonas 1997), 이것이 전통적 의료에 대하여 적대적인 인상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영국에서는 보완의료(complementary medicine), 즉 전통의료와 보완관계를 이룰 수 있는 의료라고 표현하고(Gordon 1996), 이는 주로 경험에 바탕을 둔 의료로 정통적 의료가 흡족하게 만족을 시켜 주지 못하는 분야인 만성적인 질환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하게 행해지는 대체의료는 국가와 지역적 차이가 많아서 분류하기가 쉽지 않으나 미국의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산하 대체의료분과(Office of Alternative medicine)는 정신-신체 중재치료(Mind-body intervention), 생전기자장치료(Bioelectromagnetic therapy), 대체의료체계(Alternative systems of medical practice), 수기요법(Manual healing method), 약물치료(Pharmacologic and biologic treatment), 약초요법(Herbal medicine), 식이와 영양요법(Diet and nutrition) 등의 7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Gordon 1996). 이 분과의 역할은 대체의료와 정통의료와의 교량 역할을 맡아서 대체의료에 대한 연구를 지원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Jacobs 1995).

미국의 연구 조사에서 1990년 한해 동안 18세 이상 1,5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대체

의료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3명 중 1명(34%)이었으며(Eisinberg등 1993), 영국·독일·프랑스·네덜란드·덴마크·벨기에·스웨덴 등 유럽에서는 20~50%의 이용률을 보였고, 각 나라마다 이용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Fisher와 Ward 1994). 호주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1993년 한해 동안 15세 이상 3,004명 대상에서 48.5%의 대체의료 이용률을 보였다(MacLennan등 1996). 우리 나라에서는 대체의료의 전반적인 이용행태 조사는 아니지만, 건강 식품 섭취 경험만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 검진 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섭취 경험은 75%에서 있었고 의료진과 상의하여 섭취한 경우는 15.3%로 보고되었다(양운준과 서홍관 1992).

서양 의학이 도입된 지 100년에 가까운 현 시점에서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의료인들은 한국인의 건강관에 과연 얼마나 부합되는 의료를 시행해 왔는가를 반성하고 사회 문화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이룬 우리 사회에 적합한 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관은 매우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며, 최근의 급격한 사회 문화적 변화에 따라 다시 변화가 올지 모른다. 건강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철학과 종교적 관념, 사회적 변천, 가족 관계에서의 경험, 각 개인의 과거 경험, 사회라는 집단에서 오는 압력, 문화 또는 금기(taboo), 그리고 제공되는 의료체제 등이 있다(정영조 1997).

이에 저자들은 현시점에서 신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일부 일반인이 어떤 양상으로 대체의료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조사해 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1997년 9월 부산시 일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1500명 전교생의 가족 중 18세 이상인 성인 중 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회신된 1031명(회신율 68.7%) 중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병적 증상이나 질병을 앓은 적이 없는 사람 등의 237명을 제외한 794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가 과거 또는 현재에 앓았던 증상이나 질병을 저자가 열거한 증상 또는 병명(정중훈 등 1995; 오철동 등 1993)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게 한 후, 그 증상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모든 곳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자가 응답한 증상이나 병명으로 저자가 열거한 대체의료 중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을 모두 적게 하고, 대체医료를 시행한 장소나 치료제를 구입한 곳도 모두 적게 하였다. 그 외에 대체의료에 대한 만족도, 대체医료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준 사람, 대체의료가 정통의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함께 증상이나 질병을 앓았던 사람의 인구통계학적 자료로 성별, 나이, 학력, 종교, 가계의 월 총수입 등을 조사하였다.

2) 대체의료의 종류

대체의학체계(한의학, 침술), 수기요법(척추교정요법, 지압, 마사지, 물리치료), 정신-신체 중재치료(요가, 단전호흡, 기치료, 명상, 최면요법, 굿), 약초요법(한약, 민간요법), 건강식품을 포함한 보신식품 및 각종 식이요법으로 분류하였고, 저자가 열거한 이외에 조사 대상자가 시행해 본 기타 치료법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3) 대체의료의 정의 및 특성

여러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비교 관찰하는데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체의료의 정의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나라는 양방이라 불리는 서양 의학과 한방이라 불리는 한의학으로 대별되는 두 가지 의료체계를 갖고 있지만, 한방을 편의상 대체의료에 포함시켰다.

(2) 한약은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조제하여 구입한 한약 또는 보약을 말하는 것으로, 약국이나 한약 견재상에서 구입한 것도 한약에 포함시켰으나, 약국에서 처방을 받은 양약이나 구입한 양약은 대체의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3) 침술은 한의원, 한방병원, 침술원 등에서 행하는 것 이외에도 가정에서 행하는 수지침 등을 모두 포함시

켰다.

(4) 물리치료, 지압, 마사지요법 등 병원에서 행하는 것은 대체의료에서 제외시켰다.

(5) 민간요법은 예로부터 치료 효과가 있다고 전해오는 것을 일반 민간에서 간단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과학적인 실증을 거치지 않은 채 약효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많이 알려진 묘약이나 향약, 자극요법 등을 말하며 약물요법과 자극요법으로 나누어진다(한국브리태니커 1994).

(6) 건강식품을 포함한 보신식품 및 식이요법으로는 알로에, 스쿠알렌, 영지버섯, 클로렐라, 로얄젤리, 효소제품, 효모제품, 유산균이용 식품, 화분제품, 대두레시틴 가공식품 등의 건강보조식품과 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및 임신부를 위한 특수영양식품과 흑염소, 개소주, 응답, 생사탕 등의 임가공업 제품을 여기에 포함시켰고(양윤준과 서홍관 1992), 포도요법 등을 포함한 식이요법도 편의상 여기에 분류하였다.

(7) 굿은 무당이 인간의 길흉화복을 신에게 기원할 목적으로 제물을 바치고 가부와 의식절차를 통해 행하는 제의로서 목적에 따른 종류 중 치병기원제(治病祈願祭儀)는 치병을 목적으로 하는 제의로서 일반적인 병 굿이나 푸닥거리와 함께 영장치기, 산거리, 주천굿, 명두굿 등도 포함시켰다(한국브리태니커 1994).

(8) 그 외에 근래에 향간에서 유행하는 기치료, 단전호흡, 명상, 요가 등도 대체의료에 포함시켰다.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대체의료의 이용률

총 연구 대상자 794명 중 성별로는 남자가 38.2%, 여자가 61.8%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4.9±13.4세로 분포는 18세부터 87세까지였으며 35~49세가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49.8%, 대졸이 20.0%로 고졸이상이 많이 차지하였고, 종교는 불교가 56.4%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대체医료를 이용한 사람의 가계 월 총수입별 분포는 백만원 내지 이백만원이 가장 많았다. 성별 대체의료의 이용률은 남자가 57.8%, 여자가 62.0%로서 여자에서 조금 높았으나 유의한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별 대체의료의 이용률은 50~65

세 76.3%, 65세 이상 71.6%로 50세 이상에서 비교적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학력별 대체의료의 이용률은 무학이 66.7%, 국졸이 71%로 가장 높았고, 종교별 대체의료의 이용률이나 월수입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2. 신체적 증상 및 질환별 의료기관과 대체의료의 이용 형태

연구 대상자들이 주로 이용한 병원 및 약국과 대체의료의 전반적인 이용행태를 보면, 병원만 이용한 경우는 29.3%, 약국만 이용한 경우는 9.7%, 병원과 대체医료를 이용한 경우는 35.5%, 약국과 대체医료를 이용한

경우는 4.6%, 대체의료만 이용한 경우가 20.9%로 병원 및 약국을 이용한 경우는 73.8%(586/794)이었고, 대체医료를 이용한 경우는 61.0%(484/794)이었다. 병원 및 약국을 이용한 경우가 대체医료를 이용한 경우보다 많았다(Table 2).

연구대상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이나 질환을 20

Table 2. Frequency of using hospital, drug store or AM*

Used modality	No. (%)
Hospital only	233(29.3)
Drug only	77(9.7)
Hospital+AM	282(35.5)
Drug store+AM	36(4.6)
AM only	166(20.9)
Total	794(100)

* : alternative medicine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use of alternative medicine

Characteristics	No. (%)	No. of AM* users(%)
Sex		
Male	303(38.2)	175(57.8)
Female	491(61.8)	309(62.9)
Age(yr)		
18 - 24	3(0.4)	2(66.7)
25 - 34	86(10.8)	48(55.8)
35 - 49	527(66.4)	303(57.5)
50 - 65	76(9.6)	58(76.3)
65세 이상	102(12.8)	73(71.6)
Education		
Uneducated	30(3.8)	20(66.7)
Primary school	100(12.6)	71(71.0)
Middle school	111(14.0)	62(55.9)
High school	395(49.8)	237(60.0)
University	158(20.0)	94(59.5)
Religion		
Protestantism	88(11.1)	59(57.1)
Catholicism	53(6.7)	36(67.9)
Buddhism	448(56.4)	284(63.4)
Others	7(0.9)	3(42.9)
None	195(24.9)	102(51.5)
Monthly income (1,000 won)		
0 - 1,000	126(15.9)	71(56.3)
1,000 - 2,000	420(52.9)	263(62.6)
2,000 - 3,000	166(20.9)	97(58.4)
3,000 - 4,000	55(6.9)	38(69.0)
4,000 이상	27(3.4)	15(55.6)
Total	794(100)	484(61.0)

* : alternative medicine

Table 3. Use of hospital, drug store or alternative medicine for the 20 most frequently reported principal medical conditions

Medical condition	No. (%)	No. of hospital or drug store users (%)	No. of AM* users (%)
Back pain	125(15.7)	71(56.8)	107(85.6)
Gastritis & Peptic ulcer	122(15.4)	107(87.7)	67(54.9)
URI	100(12.6)	94(94.0)	36(36.0)
Arthritis	96(12.1)	58(60.4)	82(85.4)
Headache	75(9.4)	68(90.7)	32(42.7)
DM	47(5.9)	45(100.0)	23(48.9)
Allergies	34(4.3)	30(88.2)	15(44.1)
Hypertension	27(3.4)	21(77.8)	23(85.2)
Thyroid disease	22(2.8)	22(100.0)	8(36.4)
Stroke	22(2.8)	8(36.4)	19(86.4)
Hepatitis & Liver cirrhosis	21(2.6)	21(100.0)	12(57.1)
Cancer	21(2.6)	20(95.2)	15(71.4)
Asthma	20(2.5)	15(75.0)	13(65.0)
Insomnia	13(1.6)	7(53.8)	11(84.6)
Cystitis	12(1.5)	12(100.0)	1(8.3)
Renal failure	9(1.1)	8(88.9)	5(55.6)
Dermatitis	9(1.1)	9(100.0)	3(33.3)
Obesity	7(0.9)	1(14.3)	6(85.7)
Heart failure	6(0.8)	6(100.0)	3(50.0)
Anxiety & Depression	6(0.8)	5(83.3)	3(50.0)
Total	794(100.0)	586(73.8)	484(61.0)

* : alternative medicine

가지로 나누어 각 증상 및 질환별 대체의료의 이용행태를 조사해 본 결과, 뇌졸중(86.4%), 비만증(85.7%), 요통(85.6%), 관절염(85.4%), 고혈압(85.2%), 불면증(84.6%)에서 비교적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그리고 갑상선 질환(36.4%), 상기도 감염(36.0%), 피부염(33.3%), 방광염(8.3%)에서 비교적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병원 및 약국의 이용행태를 살펴보면, 당뇨병, 갑상선 질환, 간질환, 방광염, 피부염, 심장질환에서 100%의 이용률을 보였고, 뇌졸중은 36.4%, 비만증은 14.3%로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병원 및 약국과 대체의료 양쪽 모두에서 높은 이용률을 보인 것은 고혈압(77.8%, 85.2%)과 암(95.2%, 71.4%)이었다(Table 3).

3. 대체의료의 종류별 이용행태와 제공처

대체의료의 종류 중 한약이 322명(45.9%), 침술 및 뜸이 210명(29.9%), 민간요법 65명(9.3%), 건강식품 및 식이요법이 54명(7.7%)으로 4가지 종류가 대부분(92.8%)을 차지하였다. 대체医료를 행하는 장소로는 한의원이 가장 많았는데 한약, 침술, 지압, 뜸, 물리치료, 민간요법, 척추교정요법 등 다양한 치료법을 시행

했었다. 대체의료로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한약을 구입한 장소는 한의원뿐만 아니라 약국, 한약 건재상 등이 있었다(Table 4).

Table 4. Types and frequency of AM* use and the places where provide AM*

Type of AM	No.%(%)	Place providing AM
한약	322(45.9)	한의원, 한약 건재상, 약국
침술 및 뜸	210(29.9)	한의원, 침술원, 집(수지침)
민간요법	65(9.3)	한의원, 한약 건재상, 집
건강식품, 식이요법	54(7.7)	건강식품점, 건강원, 한약 건재상, 집
지압	25(3.3)	한의원, 물리치료원, 지압원, 침술원, 집
척추교정술	11(1.6)	한의원, 척추교정원
기치료	6(0.9)	기치료원
물리치료	5(0.7)	물리치료원
단전호흡	1(0.1)	단전호흡수련원
요가	1(0.1)	요가 강습소, 에어로빅 강습소
단식	1(0.1)	단식원
Dapson	1(0.1)	나환자촌
Total	702(100)	

* : alternative medicine

: numbers of overlapping responses

Table 5. Degree of satisfaction about using alternative medicine for the 20 most frequently reported principal medical conditions

Medical condition	No. of AM* users	Very satisfied	Satisfied	Partially satisfied	Unsatisfied
Back pain	107	12	32	52	11
Gastritis & Peptic ulcer	67	6	20	33	8
URI	36	4	12	19	1
Arthritis	82	2	20	49	11
Headache	32	0	7	24	1
DM	23	0	5	18	0
Allergies	15	0	6	7	2
Hypertension	23	2	3	12	6
Thyroid disease	8	1	3	3	1
Stroke	19	2	3	10	4
Hepatitis & Liver cirrhosis	12	1	3	5	3
Cancer	15	1	3	5	6
Asthma	13	1	2	10	0
Insomnia	11	3	1	4	3
Cystitis	1	0	1	0	0
Renal failure	5	0	2	0	3
Dermatitis	3	1	1	0	1
Obesity	6	0	3	1	2
Heart failure	3	0	1	2	0
Anxiety & Depression	3	0	2	1	0
Total(%)	484(100)	36(7.4)	130(26.7)	255(52.7)	63(13.0)

* : alternative medicine

Table 6. Factors affecting decision to use AM*

Factor	No. (%)
Their own	179(37.0)
Friend	61(12.6)
Family	196(40.5)
Two or all of the above	48(9.9)
Total	484(100)

* : alternative medicine

4. 대체의료에 대한 만족도

대체의료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약간 만족이 52.7%로 가장 많았고, 각 증상 및 질병별 만족도는 Table 5와 같았다.

5. 대체의료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대체의료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으로는 본인 스스로의 결정(37.0%)과 가족의 권유(40.5%)에 따른 경우가 가장 많았다(Table 6).

6. 대체의료가 정통의료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대체의료가 정통의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체의료가 '몸에 해가 안되고, 몸을 보하여 주며, 약약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5명(41.1%), '효과가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4명(27.9%), '시간이 절약되고, 경제적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0명(25.3%), '친절하게 환자를 대해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9명(5.7%)이었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예들을 보면 '양약이 몸에 해로울 것이다', '한약은 기운을 돋운다', '장기적인 복용이 가능하다', '자연 치유다', '영양을 보충해 준다', '천연재료를 사용해서 몸에 해가 안된다, 면역성을 강화시켜 준다', '예방 차원이다', '가정에서 가족 중에 한 명이 배워서 하면 편리하다' 등이 있었다.

토 론

연구대상에서의 대체의료 이용률은 61%이었으나, 이 수치는 증상 또는 병명을 가진 경우의 통계이고, 실제로 질병이나 특이한 증상이 없는 사람들까지 널리 이용하는 보약과 성분을 알 수 없는 조제약의 사용을 포함하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설문 조사에서 실제로 증상과 병명이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대체의료 이용에 대하여 물었기 때문에 설

문지에 기입하지 않고 보약을 복용한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에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반인에서 1990년 한해 동안에 34%의 이용률을 보였으나(Eisinberg등 1993), 본 연구에서는 연도는 제한을 두지 않고 조사하였으나 연도를 직접 기입하는 난에 비교적 최근 2년 내의 자료가 많았다.

Spigelblatt등(1994)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병원 소아과 외래환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출생 후 대체의료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11%이었다. Boisset과 Fitzcharles(1994)에 의하면 단일 질환으로서, 류마티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최근 1년간 대체의료의 이용률이 66%이었다. 서옥희 등(1995)은 농촌지역의 고혈압 환자의 관리행태조사에서 자가치료가 14.5%, 민간요법이용자가 6.1%, 약국이용자가 15.3%, 한방이용자가 8.4%, 병의원 방문자가 55.8%,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이 34.1%라고 보고하였고, 문형도 등(1995)은 대학병원 정기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고혈압 유소견자의 혈압관리 행태를 보면 고혈압관리에 대해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15명(17.4%), 관리를 하는 사람 71명(82.6%) 중 자가치료를 행한 사람이 65.1%, 민간요법이 5.8%, 약국이나 한방을 이용한 경우가 29.1%, 병의원 방문자는 30.2%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류마티스 환자의 결과는 아니지만 관절염을 호소한 연구 대상자 중 대체의료를 이용해 본 경험은 85.4%이었고, 고혈압은 85.2%로 위의 결과와 본 논문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 번이라도 대체의료를 시행한 사람은 모두 답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의사도 대체의료에 관심이 많아서 Borkan등(1994)은 미국의 60%이상이 지난 한해 동안 대체 의료에 의의를 하였으며, 환자를 의뢰한 이유는 환자 본인이 원하여, 정통적 치료와 병행하여 치료의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환자의 문화적 성향으로, 정통적 의료의 실패로, 환자가 비기질적 또는 정신과적 병을 가지고 있다는 믿기 때문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대체의료에 대한 분류(Gordon 1996)로는 미국의 국립보건원 산하 대체의료분과에서 7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는데 첫 번째는 정신-신체 중재치료로서 정신과 육체가 서로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전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신치료, 바이오피드백, 미술치료, 음악치료, 이완요법, 최면요법처럼 이미

현대 의학의 임상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명상, 요가, 무용치료, 기도와 영적 치유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생전기자장치료로 살아있는 생명체와 전자기장과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치료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잘 붙지 않는 골절의 치료에 전기적 자극이나 자기장을 이용한 것이다. 세 번째는 대체의학체계로서 전통중국의학,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의학, 동종의학, 침술 등이 이에 속한다. 네 번째는 수기요법인데, 손을 이용한 치료로서 정골요법, 척추교정요법, 정형의학, 스트레칭, 마사지요법, 물리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섯 번째는 약물치료로서 관상동맥질환에 킬레이트제를 사용하는 경우와 암환자에게 상어연골치료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여섯 번째는 약초요법으로 한약, 인삼, 은행잎추출물, 민간요법 등을 사용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일곱 번째는 식이와 영양요법으로 일일 요구량보다 많은 다량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투여하는 것 등이다. 위의 분류방법은 미국에서 흔히 행하여지는 대체요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 나라 따라 적절한 분류법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의하면 주로 우리 나라에서는 한방의 한약과 침술, 민간요법 등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우리 나라가 양방과 한방의 두 가지 의료 체계로 존재하고, 일반인들은 오래 전부터 내려온 한방을 포함한 전통의료(traditional medicine)에 의존하려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사회심리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우리 사회는 동양문화권에 속해 있고 많은 환자에서 질병관과 인간관 역시 동양적 세계관이 상당히 지배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문화적 토양 위에 바탕을 둔 한의학은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의미에서 정서적, 문화적 친밀감 내지 일치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성실 등(1992)의 연구에 의하면 양방과 한방진료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 및 인식도 조사에서 한방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도가 더 높으며 한의학적 설명 방식에 환자들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방송매체나 신문, 잡지, 출판물 등에서 일반인들에게 대체의료가 새로운 것, 신기한 것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대체의료를 그 효능과 부작용 등의 검증 없이 사용하고 있다. Fisher 등(1994)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의사들이 직접 대체의료를 시

행하는 경우도 많았고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동종요법, 침술, 수기요법, 물리치료, 약초요법 등이라고 보고하였다. 우선 우리 나라에서도 대체의료에 대한 이용실태에 대한 전국적인 역학 조사나 의사들의 태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외국에서 이루어진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일부 약용식물들이 행동, 감정 또는 인지 기능 등에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예들이 조금씩 보고되고 있다(Clinical Psychiatry News 1997). 우리 나라의 경우에 한약이 매우 광범위하게 일반인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한약제에 대한 부작용 및 양약과의 약물 상호작용 등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여 환자에게 이에 대하여 제공할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 나라에서도 일반인이 흔히 사용하는 대체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한약재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체의료들의 부작용을 검정해 봄과 동시에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학술적 연구를 통하여 효능이 증명되는 것은 전통적 의료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아 가야(이정권 등 1997)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현실적으로 만약 환자가 대체요법에 대해 의사에게 상의를 해 올 경우에는 환자의 대체의료에 대한 관심과 추구를 인정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대화하고 동시에 환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대체의료가 도움이 될지, 된다면 어떤 대체의료가 도움이 될 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사들이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지도해 주지 못한다면 어긋난 의료관행이 지속되고, 의료의 임상적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조사대상이 한 도시의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서 우리 나라 전체의 대체의료 이용행태를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되고, 주관적인 증상이나 질병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대체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특별한 증상이나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도 많은 대체의료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한다면 보다 정확한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대체의료가 많이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인 것으로 생각되기에 본 조사 연구가 향후 대체의료 이용행태의 연구에

기본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결 론

총 794명의 질병이나 증상을 가진 연구대상 중에 대체의료를 이용해 본 사람은 484명(61%)이었고, 주로 많이 이용한 증상이나 질병은 요통, 관절염, 고혈압, 뇌졸중, 불면증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혈압과 암은 대체의료와 병원 및 약국에서 양쪽 모두 높은 이용률을 보였는데, 이는 일부 만성질환이나 난치병인 경우에 어떤 의료 형태로도 환자를 흡족하게 만족 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인의 대체의료 사용 실태에 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역학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많은 환자들이 현재 대체의료를 병행하거나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점을 이해해야 정통적 의료의 연속성의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대체의료의 종류 중에서는 한약, 침술, 민간요법, 건강식품이 주로 사용되었고 이중 한약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한방과 양방으로 이원화 된 체계에서 한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다른 여러 나라와 비교되는 것으로 우리 나라 대체의료 이용행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체의료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87.0%의 응답자가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대체의료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는 가족의 권유(40.5%)와 본인의 의사(37.0%)가 많았다. 대체의료가 정통의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체의료가 '몸에 해가 안되고 몸을 보하여 주며 양약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 '효과가 좋다', '시간을 절약하고 경제적이다', '친절하게 환자를 대해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등의 순이었다. 약물 처방시 일반인들의 약에 대한 불안이나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의료를 제공하는 사람이 명심해야 할 것이며, 정통적 의료가 심리적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는 정신-신체-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보다 총체적인 치료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대체의료에 대한 이용행태를 조사해 본 결과 다양한 형태의 대체의료가 이용되고 있었다. 근래에 일부 대체의료는 정서적 신체적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영역 바깥이란 이유로 대체의료를 무시하거나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체

계적이고 과학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체의료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대체의료가 가진 위해를 발견할 수도 있고, 또한 대체의료를 통하여 새로운 치료법의 가능성을 추가하여 현대 의료의 자원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심 단어 : 대체의료 · 이용행태.

REFERENCES

- 권성실 · 오철동 · 양승렬 · 이행훈 · 강희철 · 정의식 (1992) : 양방과 한방진료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 및 인식도 기초 조사. 가정의학회지 13 : 891-900
- 문형도 · 김혜숙 · 예경희 · 성낙진 · 박기흠(1995) : 정기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고혈압 유소견자의 혈압 관리행태 및 그 효과. 가정의학회지 16 : 67-73
- 서옥희 · 성낙진 · 박기흠(1995) : 농촌지역 고혈압 환자의 고혈압 관리행태 및 그 효과. 가정의학회지 16 : 207-216
- 양윤준 · 서홍관(1992) : 일부 건강식품 섭취 실태 조사 연구. 인체의학 13 : 221-32
- 오철동 · 김미림 · 원진숙 · 이행훈 · 정의식(1993) : 한 도시지역 가정의 초진환자 진료내용 분석. 가정의학회지 14 : 72-78
- 이정권(1997) : 대체의학 - 현실과 과제. 대한의사협회지 40 : 1195-1202
- 정영조(1997) : 한국인의 건강관 - 의료이용행태와 보신 건강 - 사회정신의학적 측면의 분석. 대한의사협회지 40 : 1195-1202
- 정중훈 · 최운선 · 최기운 · 박영규 · 조경환 · 홍명호 (1995) : 의료보험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흔한 질병. 가정의학회지 16 : 193-205
- 최병무(1997) : 비학술적 치료의 도입과 유행. 대한 신경정신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 pp48-57
- 한국브리태니커 회사(1994) : 민간요법.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 사전 8 서울 : 한국브리태니커 회사 : 357-358
- Boisset M, Fitzcharles MA(1994) : Alternative medicine use by rheumatology patients in a universal health care setting. J Rheumatol 21 : 148-52
- Borkan J, Neher JO, Anson O, Smoker B(1994) : Referrals for alternative medicine. J am Board Fam Pract 39 : 545-50
- Clinical Psychiatry News(1997) : Herbal medicine pose

- drug interaction risk. February
- Eisenberg DM, Kessler RC, Foster C, Norlock FE, Calkins DR, Delbanco TL(1993) : Unconventional medicine in the United States-prevalence, costs, and patterns of use. N Engl J Med 328 : 246-52
- Fisher P, Ward A(1994) : Complementary medicine in Europe. BMJ 309 : 107-11
- Gordon JS(1996) : Alternative medicine and the family physician. Am Fam Physician 54 : 2205-20
- Jacobs JJ(1995) : Building bridges between two worlds-The NIH's Office of Alternative Medicine. Academic Med 70 : 40-41
- Jonas WB(1997) : Alternative medicine. J Am Board Fam Pract 45 : 34-37
- MacLennan AH, Wilson DH, Taylor AW(1996) : Prevalence and cost of alternative medicine in Australia. Lancet 347 : 569-73
- Spigelblatt L, Laine-Ammara G, Pless-IB, Guyver A (1994) : The use of Alternative Medicine by children. Pediatrics 94 : 811-4